

오순절 후 네번째/아버지 주일 예배
THE WORSHIP SERVICE OF 4TH SUNDAY AFTER PENTECOST

주후 2021년 6월 20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412 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새 290)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25 번 시편(Psalm) 103 편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555 장 “세 번 아멘”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문일호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Leading	야고보서 (James) 1:12-18	고민영 집사
찬 양 Anthem		찬양대
설 교 Sermon	“ 신앙을 삶으로 (2) – 미혹을 받을 때에 ” (Living out Your Faith – When You Tempted)	김일선 목사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봉 헌 Offerings.		다같이
*송 영 Doxology	353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새 317)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찬 송 Hymn	395 장 “너 시험을 당해” (새 342)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가 있는 순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각자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말과 행동에서 신앙의 참된 본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보다는, 우리의 생각이 앞섰고,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더 이상은 얽매이기 쉬운 죄의 유혹 가운데 머물지 않게 하시고,

이기적인 욕심과 그릇된 욕망을 좇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온통 죄악과 탐욕이 가득한 세상에서도,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룩하고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벧전 4:11, 미 6:8)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찌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한글개역 **약 1:13**)

“When tempted, no one should say, ‘God is tempting me.’ For God cannot be tempted by evil, nor does he tempt anyone.”

(NIV **James 1:13**)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6/20 (주일)	6/21 (월)	6/22 (화)	6/23 (수)	6/24 (목)	6/25 (금)	6/26 (토)
	신25	신26	신27:1-28:19	신28:20-68	신29	신30	신31
본문	시116 사52 계22	시117,118 사53 마1	시119:1-24 사54 마2	시119:25-48 사55 마3	시119:49-72 사56 마4	시119:73-96 사57 마5	시119:97-120 사58 마6

수/요/ 성/경/공/부 토/요/ 새/벽/기/도/회

수요 성경공부 (6/23수 오후7:30)	“불법에 타협하지 말라” (고후6:11-18)
토요 새벽기도회(6/26토오전6:30)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시43:1-5)

지난 주일(6/13) 말씀

“**신앙을 삶으로 (1) – 시험을 만나거든**” (약 1:1-11)

‘시험으로 번역된 헬라어 페이라스모스 (peirasmos)’는 야고보서 전체를 관통하는 주된 주제 중 하나로, 사도 야고보는 박해로 인해 흠어진 초대 교회 성도들(흠어져 있는 열두 지파)을 향해, 먼저 ‘시험에 관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시험을 다루는 방식에 따라, 우리 믿음의 진정성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즉, 시험은 질병, 사고, 고난, 깨어진 관계 등으로 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동시에 유혹의 형태로도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단지) 실패와 좌절만이 (우리에게) 시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공과 번영도 얼마든지 시험이 되며, (단지) 불편함과 장애만 (우리에게) 시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편안함과 안락함도 얼마든지 시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연단으로서의 시험’을 말씀하면서,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하게 여기라”(약1:2)고 우리에게 권면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여러 시험을 만났을 때, 어떻게 그 시험들을 이겨내며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를 말씀해주시는데, 1)첫째는, 우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먼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것이고 (약1:5), 2)둘째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라(즉,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이며 (약1:6-7), (마지막) 3)셋째는, 우리가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1:8). 이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시간을 지나면서,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될 수 있었던 것처럼, ‘연단으로서의 시험’은 우리를 낮아지게 하며, 우리를 정결하게 하며,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켜서, (결국)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시험을 만나도, 인내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메/모